나 빼고 행복해 보여

박한수 (hansu08@naver.com)

이 글은 불안과 우울 속에서 살던 나를 투영하여 행복의 끈을 놓지 못하는 당신들에게 바친다.

어떠한 말도 나에게 위로가 되어 주지 못했던 시절.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없었음은 물론이고, 내 삶은 한없이 어둡고 암울할 것이라고만 생각했다. 지금의 난 행복하다. 그러니 조금만 버텨주길.

세상에 나 홀로 남겨진 것 같은 기분 그리고 정처 없이 떠도는 발걸음. 몇 년 전 내 모습이 다. 사전적 의미의 집은 내게 없었으며 의지할 수 있는 누군가도 없었다. 끝도 없이 펼쳐진 어둠 속에 있는 거라곤 나뿐이었다. 그때의 나는 처음으로 나와 진지하게 대화를 해본 것 같다.

내 머릿속에서 '왜?'가 끊이지 않았다.

'나만 왜 힘든 거야?'

'왜 누구도 나를 생각해주지 않는 거야?'

'왜 살아야 해?'

'왜 나 빼고 행복해 보이지?'

'이게 아무 것도 아니라면 내가 느끼는 건 뭔데?'

'앞으로 힘든 일이 더 많은데 벌써부터 그러면 어떻게 하냐고 나한테 왜 비난하는 거지?'

'나는 충분히 힘들고, 외롭고, 지쳤어'

그래서 조금씩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던 고정 관념을 놔주기로 했다. 이기적으로 사는 건 나쁜 게 아니라 나에게 어느 정도 필요했다. 어릴 때부터 남을 배려하고, 친절하게 대해야 하며, 힘들어도 내색해선 안 된다고 배웠다. 그러나 이건 그때의 나에게 필요한 조언이 아니었다. 나는 나를 위해 이기적으로 살기로 했다.

처음으로 내가 한 것은 다른 사람의 행복을 빼앗는 거였다. 물론 그 사람의 행복을 빼앗아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도 그 행복한 기운을 누리는 것이다. 그들의 행복한 기운 가운데 있으면 마치 나도 행복한 상태에 있다고 생각하게 된다. 혼자서 행복하기 힘들었던 나는 남에게 붙어서 행복을 얻게 됐다. 그리고 언젠가 나도 행복한 기운을 낼 수 있는 사람이 되길 기대하게 됐다.

다음으로 나는 불행에 연연하지 않기로 했다. 불행의 늪에서 허우적거린다고 나아지는 건 하나도 없었다. 그건 분명히 절망스러운 일임에 틀림없으나 그 감정의 고통에 아파할수록 내 처지만 더 불쌍해 질뿐이었다. 그래서 예기치 못한 불행한 일이 생기면 '얼마나 좋은 일이 생기

려고 지금 힘드냐'로 넘기게 되었다. 누군가에게는 이런 나의 태도가 너무 낙천적이며 현실로 부터 도망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른다. 그러나 부정적인 감정에 도취될 바엔 어찌면 다가올 긍정적인 미래를 그리는 게 낫다는 것을 깨달았다.

SNS 속 타인들은 언제나 행복해 보이고, 잘 사는 것 같다. 물론 그게 꾸며낸 모습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도, 눈에 보이는 걸 무시하는 건 쉽지 않다. 특히 나와 비슷한 나이대의 사람들의 풍요롭고 여유로운 삶은 부러워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나는 그런 꾸며낸 모습을 보기보단 다른 것을 보기로 했다. 나와 비슷한 환경에서 성공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을 보며, 현실적인 조언을 찾아 들었다. 애초에 나와 다른 환경에서 그럴 듯한 모습을 보이는 사람에게선 환경을 탓하며 내 자존감만 무너트리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나보다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며 자아도취 할 필요도 없다. 너무 자신을 낮추지도, 높이지도 않고 있는 그대로를 살아가는 법을 배웠다.

우울과 불안의 늪에서 나는 홀로 남겨졌었다. 하지만 혼자 남겨졌을 때가 비로소 나에게만 집중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 타인과 비교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일 수 있었다. 지금의 나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판단하게 되었으며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그럴 듯하게 보이지 않아도 괜찮다. 이기적으로 살아도 괜찮다. 내 삶 하나. 나를 위해 사는 게 비난 받을 일인가? 주어진 시간 속에서 나는 더 이상 불행하고 싶지 않다. 온전히 나를 위해 살고 싶다. 그렇게 끝없이 이어질 거 같았던 어둠도 서서히 그림자로 남게 될 것이다.